

“기적과도 같은 미국이민!” [전편]

나는가족과 함께 1977년 미국으로 이민온 어중간한 1.5세대다. 지금 내 곁에는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놓으신 부모님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다.

7월 29일은 나의 어머니의 생일이셨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며 미국 이민 오던때를 기억해 본다. 내 기억으로는 1977년 겨울은 몹시 추웠다. 차가운 바람이 내 귀 밑을 따갑게 스친 어느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나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나는 속으로 혼자 생각 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 도대체 무엇일까?”

예사롭지 않은 우리 교회 분위기는 바깥 찬바람 보다 더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교회 분위기에 대해선 직감 능력이 뛰어났다. 열심이 있던 장로님들의 얼굴에는 열정과 미소가 사라졌고,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의 입가에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묵묵히 평소대로 교회일에 충실하셨지만 내 마음에는 무엇인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거야!” “혹시 아버지가 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아~~! 지겨운 이사...”

나는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길때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내 기억으로 가장 힘들었던 적응은 대전이었다. 아버지께서 내가 국민학교 3학년때 대전으로 목회지를 옮기셨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가서 대전 대흥국민학교 3학년에 전학했다. 누나는 그때 서울 이모집에 두고 갔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2년동안 대전에서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다. 당시 국민교육헌장이 발표 되었는데 나만 표준말로 외운다고 대전 사투리로 외우라고 무척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지금도 “그래유~~ 저래유~~” 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생각난다. 하여튼 “이제 또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기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나는 불안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우리집에서 가족회의라니?”

나는 무척 궁금했다. 나의 직감이 맞을 것이란 생각에... 아버지는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조용하게 말씀 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들어야 한다! 우리가족은 다음달 12 월 12 일에 미국으로 이민간다!”

나와 누나는 깜짝 놀랐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구요? 와~~!!! 정말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가요?”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는 이민을 반대 하셨다. 미국이민은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신이났다. 이사를 가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이 좋았다.

우리 가족의 미국이민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섭리가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 임하셨다고 이민을 가게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아버지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한 미국선교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셨다.

아버지는 미국 가기전부터 철저히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 할 계획을 가지셨다. 샌디에고에서 선교대회를 마친 아버지는 LA 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동하셨다. 넓은 미국 대륙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 속으로 기도 하셨다고 했다.

“하나님! 내가 나이 더 들기전에 자유의 땅 미국에 와서 사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두손 모아 간절히 차안에서 기도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오래전 피난시절 전쟁중에 선교사의 제안으로 미국으로 유학 올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피난민들이 부산에 보수동교회를 세워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다. 교인들을 나두고 혼자 미국으로 공부 하려 갈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목회 때문에 유학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동부로 행한 아버지는 당시 윤명호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볼티모어

한인 연합교회의 필유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신 후 아버지는 그 다음 뉴욕으로 가셨다. 뉴욕에서 박희소목사가 시무하던 동부교회에서 또 집회를 인도하신 후 밤중에 맨하탄 고층의 찬란한 불빛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회상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 라체스터시에 살고 계시던 감리교의 윤경원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그날 밤을 그 곳에서 지내시고 다음날 윤경원목사님과 함께 캐나다로 향하셨다. 캐나다로 가기전에 윤목사님께서 성직자들이 입는 'White Color' 두벌을 사서 하나는 자신이 입고 하나는 아버지 에게 주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캐나다로 가면서 보았던 미국의 농촌 풍경과 산야의 경관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회상했다. 두분은 오랜 시간을 달리다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우연히 디트로이트 근교의 한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에 들어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 (To Be Continue...)

<저작권 copyright 은 서만옥스 한인교회 무단 복제 배부 금합니다>